

한국 아동 예방접종률, 미국·호주·영국보다 높아

'전국 예방접종률 통계' 전수조사 결과 첫 공개

2012년생 어린이의 예방접종률은 첫돌 이전 94.3%, 세 살 이전 8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2012년생 어린이가 생후 3년까지 예방접종한 전체 기록(예방접종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연령별, 백신별, 지역별 예방접종률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첫돌 이전(만 0세, 4종백신 10회)은 94.3%, 만 2세 이전(6종 13회)은 92.1%, 만3세 이전(7종 16회)은 88.3%로 각각 나타났다. 4종 백신은 BCG(결핵), HepB(B형간염), DTPa(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를 말하며 6종 백신은 4종 + MMR(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Var(수두), 7종 백신: 6종 + JE(일본뇌염) 등을 말한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MMR이 97.7%, IPV 97.4%, Var는

97.3%, BCG 96.7%, HepB 96.3%, DTPa 95.6%, JE 92.3%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방접종률은 만 3세 이전까지 접종률로 비교했을 때 강원 92.0%, 대전 91.6%, 울산 91.2%의 순서로 높았고, 서울 86.8%, 부산 87.1%, 광주 87.3%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별 완전접종률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접종률 비교 결과, 우리나라 만 3세 이전까지 어린이의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 동일한 접종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B형간염, DTPa, IPV, MMR, 수두 등 5종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의 백신별 완전접종률이 미국, 호주, 영국 등과 비교해 평균적

으로 약 2~6%p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접종횟수가 많아져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만 3세까지 총 4회로 접종횟수가 많은 DTPa 백신과 생후 12~23개월에 첫 접종하고 12개월 후 추가접종해 늦은 시기까지 접종하는 JE 백신의 예방접종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예방접종률 차이는 현재 시점의 주소지 기준, 해외거주자 등 인구 이동 요인으로 해석의 한계는 있으나 지자체별로 미접종자 개별 유선 안내 등 집중관리 방법의 노력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정부

가 2009년부터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민간에서도 무료접종 지원을 확대하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했고 이로써 어린이 건강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아이가 자리하면서 한두가지 접종을 빠뜨려 안전접종률이 떨어지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3세 이상 연령은 감염병 발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자녀 접종기록을 확인하고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자녀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률 전역 무료로 지원 중에 있다.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출생자 48만명 중 접종률이 한건도 없는 미접종자 1870명을 대상으로 방문집중조사 1254명을 실시해 미접종 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외거주로 인한 미접종이 74.0%(928명), 보호자 신

념(이상반응 우려, 백신접종 불필요, 종교적 이유)에 의한 접종 거부

가 19.2%(241명), 면역저하자 등의학적 사유가 4.5%(57명), 기타 개인사정(바빠서)과 전신등록 누락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항후 미접종자의 학부모 교육수준, 소득재산 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원인분석을 통해 미접종자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통계결과를 2012년에 출생한 전국 48만 명(행자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전원을 대상으로 11월 시점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기록을 분석해 산출한 것으로 매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공개한 통계는 기존의 표본조사가 아닌,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첫 전수조사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의 꿈, 무대 위에서 활짝 피다'

김천치레초, 꿈과 끼 발산 치레초 학예회 개최

경북 김천시 지례면 지례초등학교(교장 정진표)는 지난 11월 4일 오후 치레초 강당에서 내빈들과 학부모, 교사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꿈과 끼를 발산하는 지레초 학예회를 실시했다.

이번 학예회는 2학기부터 시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기타, 바이올린, 댄스 공연도 선보였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학생들의 솜씨를 보는 관객들의 함성으로 가득찬 장면을 지켜보게

했다. 이날 학예회는 본교와 분교가 함께 준비한 첫 학예회로써 20여 편의 무대공연과 학생들이 평소 애용하고 그리거나 만들었던 그림, 사예, 도자기, 만들기 작품들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본교를 포함한 전교생이 44명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70여 명이나 되는 높은 참여율을 보임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짐작케 하였다.

지레초등학교 정진표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사랑스런 자녀들이 준비한 여러 공연을 보면서 지레교육가족이라는 단합된 마음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천지레초



퇴근 늦어도 안심하고

말기는 어린이집 찾습니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범적인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모델을 집중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말발이 가구가 늦게까지 마음을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모범 어린이집을 발굴, 종일반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9월부터 23

일까지 15일간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종일반 운영을 모범적으로 해 온 어린이집이려면 참여할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나 어린이집지원시스템(cms.childcare.go.kr)에서 공모전 신청서와 운영사례 보고서 등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idea@kcp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치 속 고춧가루, 면역 효과 있는 유산균 만든다

농진청, 상관관계 확인...김치 유산균 식품원료 등록 추진

김치에 넣는 고춧가루 함량과 면역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유산균을 증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김치의 주요 유산균 중 하나인 '바이셀라 사이비리아(Weissella cibaria)'의 생성과 고춧가루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셀라 사이비리아는 사람 음식에서 함량, 항염, 항균 기능을 하는 물질인 인터루킨(interleukin)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진청은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김치와 그렇지 않은 김치를 4℃ 냉각고에 12주간 저온 발효한 결과, 고춧가루가 있는 김치는 발효시킨 지 7주 정도 됐을 때 바이셀라 사이비리아 개체 수가 2000만개 가량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7주 이후부터는 개체 수가 감소했다.

반면, 고춧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김치는 바이셀라 사이비리아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함량, 면역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바이셀라 사이비리아가 많은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고춧가루를 넣고 저온에서 발효하는 것이 좋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으며 농진청은 바이셀라 사이비리아 유산균을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 가능한 식품원료로 등록할 예정이다.

최정숙 농진청 기능성식품과장은 "바이셀라 사이비리아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유산균 음료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김치가 세계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천다수초, 독도 바로 알기 교육 주간 운영

경북 김천다수초등학교(교장 김호진)는 10월 독도의 날 및 독도 주권을 선포한 날(1900.10.25.)을 맞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뭉스 실천할 수 있는 독도 바로 알기 교육 주관을 운영하였다.

독도 수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독도 바로 알기' 주관을 운영하여 독도 사랑 정신 및 수호 의지를 다지는 교육을 하였다. 4, 5학년은 '독도' 교재를 활용한

학년성에 맞는 독도 관련교재 및 영상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여 독도 주권을 선포한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생활화 하도록 주력했다.

또한 1학기에 독도 교육 주관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4월 15일 강당에서 4~6학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사랑 골든벨 대회를 실시했다. 독도의 역사, 환경, 가치, 수비대

관련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한 결과 최우수 4학년 권유은 의 4명이 수상하여 독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4월 11~15일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독도 수호 관련 박람회 대회 실시해 독도 수호 관련 시화, 그림, 포스터, 표어, 캐릭터 그리기를 실시해 우수 학생을 시상하였다.

이날 시상된 우수 작품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작품전시회에 전시하여 학생들의 독도 사랑과 독도 수호 의지를 높였다.

최한구 기자 chikgsm10@naver.com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회장 안상식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우편번호 06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30(삼성동)
구독문의/대외협력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턴전화 032-429-1000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혁신분발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선조달담당
- 프로क्टर 및 영상기기, 음향 설계공사
- 전자실란, 문서세탁기

03 불용물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물품의 불용물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맡김에 해결

불용물처리 및 조달담당 관련 수거사업은 고객의 기존 불용물들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 소멸적 처분에 의한 재활용 가능성에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 임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기처리의 수거비가 부족한 우리 나라에 폐기처리에 대한 최우선 재활용품을 통해 부족한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LASER 레이저타운 불용물품 관리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